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업적

홍 성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재정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재정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재정분야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과 업적가운데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우리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령도업적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재정부문 일군대렬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실무능력이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부문에 좋은 사람들을 선발배치하는 한편 새로 재정일군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3권 132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재정관리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것이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나라의 재정건설에서 선차적문제 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일군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우선 과거 낡은 사회에서 복무하던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재정일군으로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지식인들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일제기관에 복무한 경력은 있지만 과거 식민지식인으로서 일제의 혹심한 민족적압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반제체급의식과 애국사상을 가지고있었으며 공부를 하여 진리를 파악하고있었기 때문에 선진적인 로동체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우리 나라의 오랜 지식인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재정일군으로 받아들이며 나라의 재정사업을 맡아보는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 로동체급에게 복무하는 지식인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던 지식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어 그들에게 재정부문의 중요한 사업을 맡기고 생활을 안착시키는 사업과 함께 지난날 일제의 전문적인 세금징수기관이었던 세무서들을 없애고 거기에 복무하던 직원들을 잘 료해하여 좋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각급 재정기관에 받아들이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오랜 지식인들과 재정일군들은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노동자, 농민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혁명의 초소에 섰으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일군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또한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재정일군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2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재정국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나라의 금고를 맡아볼수 있는 근로인민출신의 재정경리일군들을 양성하는 경리학교를 새로 내오는 문제와 그 개교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일군양성에서 중요한것은 기술실무교육과 함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육교양하는것, 양성기간은 2~3개월정도로 하여 많은 일군을 양성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6월 4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북조선경리학교개설문제가 토의되었다. 여기서는 학교의 교원문제가 걸리는 조건에서 재정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은행들에서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겸임강사로 쓸데 대한 문제, 특별강의를 많이 조직하여 수강생들에게 재정사업과 관련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정권기관의 각 국들에서 수강생모집과 강사선발, 교사준비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6월 20일 북조선경리학교가 개교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우수한 일군들을 새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믿음직한 재정일군들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창립하고 경제학부에 재정경제학과를 내와 주체의 재정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유능한 재정일군들을 키워내도록 하시였으며 재정일군재교육기관인 중앙재정간부양성소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38(1949)년에는 3년제 재정경리전문학교를 설치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정치사상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일정하게 준비된 경리학교 졸업생들과 각급 당조직들에서 파견된 근로인민출신의 우수한 일군들을 기본으로 하고 과거 재정은행기관들에서 일해온 일군들을 망라하는 첫 재정일군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우리의 믿음직한 일군들이 그 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정일군들이 새 조국건설에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한 일군들로 키워주신것이다.

우리 당의 재정정책과 로선이 아무리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재정일군들이 그릇된 품모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새 조국건설에 펼쳐나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재정일군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한 일군들로 키우는것은 나라살림살이와 당의 재정정책관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2월 각 도 재정부장, 시, 군 재정과장 및 세관장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재정일군들이 새 조국건설에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일군들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물질적복리증진을 위한 인민적재정의 관리자이며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금고를 맡아 나라살림살이를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는것만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재정일군들은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는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버리고 새 조선의 일군다운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재정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의논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재정문제를 풀어나가는 인민적작풍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하며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준법성을 높여 국가재정관리에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재정규률위반현상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인민의 재정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재정관리에서 재정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할데 대한 문제,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재정국장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국가의 재정관리사업을 잘해나가자면 풍전을 아껴쓰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에는 한푼의 돈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자금을 아까와할줄 모르면서 《호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일군은 참다운 인민의 재정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정일군들은 사상관점과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바로 가지고 건국사업에서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정일군들이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고 국가재정관리를 잘해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부기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재정부기연구단체를 조직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재정부기일군들은 온 나라에 통일적인 부기계산체계를 세우고 부기일군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대중단체를 내올데 대한 제의서를 만들어 당중앙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재정일군들의 제의서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4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재정국의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직맹이 있는 조건에서 정치단체로서의 대중단체가 아니라 사업내용으로 보아 연구단체로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새로 조직되는 연구단체는 선진적인 부기계산제도의 연구, 부기계산에 관한 전문잡지의 발간, 출판사업 등으로 재정부기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경영계산연구회가 조직되고 《경영계산》잡지가 발간됨으로써 재정관리와 부

기계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재정부기사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뿐아니라 재정부기일군들의 자질을 높일수 있는 옳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8(1949)년에 《재정금융》잡지를 발간하도록 하시고 재정금융출판사까지 조직하여주심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여 재정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부기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기능자격등급을 설정하여주시고 물질적으로 우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정정리기능과 대우개선에 관한 규정》과 《재정정리기능자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보아주시고 주체38(1949)년 8월 23일 내각결정 126호와 127호를 채택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정리일군들의 기능자격을 고급정리사, 상급정리사, 상급회계원, 회계원의 5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능등급에 따라 가급금을 기본생활비의 10~30%까지 주도록 하시였다.

아직 나라의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그 시기에 벌써 재정정리기능자격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많은 량의 가급금을 우대하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재정정리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 재정부기사업을 더 잘하도록 보살펴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의 발현이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재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